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의 **Daily**

ICLEI 세계환경회의의 뉴스&하이라이트

2010년 10월 5-7일 대한민국 인천 개최

42개국 800여 명이 참가하는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미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주요 도시관련 사안들이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회의 첫날의 뉴스와 하이라이트를 전해드립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왜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에 참가하시나요?

“두 달 전에 ICLEI에 가입했어요. 이번 회의 참가를 통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실생활의 친환경 아이디어를 얻으려고요. 여기에 와서, 오랫동안 ICLEI에 소속되어 혜택을 받는 회원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탄자니아로 돌아가면 다른 의원들도 ICLEI에 가입하라고 할 거예요.”

Honorina Mkunda, 탄자니아 **Geita** 지역 의원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기술 중심의 대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허귀선, 대한민국 성남

도시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막 총회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건물의 거대화, 대량 생산, 빠른 소비 대신, 연사들은 미래의 목표가 다음과 같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높은 생태 효율, 더 나은 회복력, 더 큰 행복. 기존의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 녹색 경제 가치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마드리드 클럽의 회원인, 이홍구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녹색성장이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에 대한 조치는 경제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아픈 사람이 열이 나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기후 변화가 그 병인이

다. ” 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도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절감 계획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Marcelo Ebrard 멕시코시티 시장은 오는 11월 21일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 기후 시장회의에서 도시들의 기후 협약이 예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미 “도시 행동 계획” 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그 행동을 측정, 보고,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조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Dorji Wangdi 부탄 왕국 노동인적자원부 장관은 “현재의 삶의 방식은 지속불가능하며,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재난과 참사를 당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탄은 현재 국민총생산(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NH)을 통치이념으로 정하였습니다. Wangdi 장관은 “국가는 생산이 아닌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하고, 국민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환경회의는 David Cadman ICLEI 회장, 송영길 인천 시장,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 문정호 환경부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오늘의 사진입니다. (LINK!!!)

저자원 도시밀도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기조강연 연사들은 하나같이 기후 변화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며, 경제나 개발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소비와 낭비를 일삼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따라야만 하는 행동이 난항에 부딪혔으며, 중산층의 확대로 환경이 파괴된다고 Martin Lees 전 로마클럽 회장은 지적했습니다.

“농부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생산적인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를 부양할 수 있는 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고 Mathis Wackernagel 글로벌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 회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자원 제한에 대한 대비에 개인이나 기업보다 도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개인이나 기업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은 도시 기획이 성패를 좌우합니다.”라고 리처드 레지스터 에코시티 빌더스 창립자는 말했습니다. 도시를 3차원적으로 생각하고, 밀도를 높이면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 이용이 가능해지며, 건물에 자재가 덜 사용되고, 도심 스포를 현상 (도시 개발이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레지스터 씨는 현실이 된 에코시티의 예를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에는 고층 아파트 건물이 대중교통이 밀집한 지역에 세워져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수십 년간 도로 밑에 갇혀있던 청계천을 복원한 후 자연환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990년, ICLEI 첫 회의에서 나왔던 보고서는 ICLEI의 임무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계산하는데 있어 세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 놀라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라고 잭 브루그만 ICLEI 창립자는 말했습니다.

회의의 발표 자료는 회의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ICLEI 20주년 – 지난 20년 동안의 추억과 성공 이야기

“1990년 9월 8일, UN의 6번 회의장에서 ICLEI 설립에 대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구 정상회의가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Jeb Brugmann, ICLEI 창립자이자 전 사무총장, 2010 ICLEI 세계환경회의에서

ICLEI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 주요한 지방정부 협의체로 성장했으며 세계의 환경 문제를 다룸에 있어 지역적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계환경회의에서 많은 회원들이 ICLEI 네트워크의 파트너로서의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ICLEI는 상파울루의 정책 기획뿐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Rafael Marques de Seixas Pereira, 브라질 상파울루

“ICLEI와 연합은 우리 시에서 문화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Pam O'Connor,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부시장 (ICLEI의 오랜 회원 도시 중 한 곳)